

은둔형 외톨이(Hikikomori)의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Public Library Services for the Social Reintegration of Hikikomori

노 영 희(Younghee Noh)*

강 정 아(Jung-a Kang)**

< 목 차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선행연구	V.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안
III. 연구 방법	VI. 결론 및 제언

요약: 본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사례를 분석,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포용과 재통합을 위한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은 보편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보 제공, 심리·정서적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안전한 공간조성 등 다층적 역할수행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역할 수행을 위해 첫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확대, 둘째, 온라인 독서 모임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연결 기회 제공, 셋째, 공공도서관을 심리적 안정 공간으로 조성, 익명성을 보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은둔형 외톨이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도서관의 평생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및 학습프로그램을 확대, 마지막으로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 마련 및 다 부처 협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

주제어: 은둔형 외톨이, 도서관의 역할, 사례분석, 사회적 포용과 재통합 거점, 공공도서관 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reclusive loner services to develop public library services for social reintegration of reclusive loner. As a result, public libraries need to play a multi-layered role through service innovation such as providing customized inform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to close the information gap for reclusive loner, providing social connection opportunities through online reading meetings and non-face-to-face programs, creating public libraries as psychological stability spaces,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to ensure anonymity, expanding vocational education and learning programs to support reclusive loner self-reliance, revising the Library Act for service sustainability, preparing ordinances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multiple ministries.

KEYWORDS: Hikikomori, Library Role, Case Analysis, Social Inclusion and Reintegration Base, Public Library Service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제1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isori69@naver.com / ISNI 0000 0004 7422 3696)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5년 2월 19일 • 최초심사: 2025년 3월 6일 • 게재확정: 2025년 3월 1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1), 27-54,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1.202503.27>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우리나라 인구 중 은둔형 외톨이 수가 2022년 기준 24만 명으로, 고립 위험군까지 포함하면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은둔 현상은 세상을 피해 제한된 장소에 계속 머물며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상태로, 이들은 사회적 연결 측면에서 고립·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한 명이 생기면 한 가정이 무너지고 지역 사회는 구성원을 잃게 되며, 은둔 현상이 평생 고립으로 연결되면서 경제활동 포기나 나타날 경우 이는 경제적 손실, 기타 건강·복지 등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활력저하, 가족 해체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발현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조례제정,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도시에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외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겠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연구모임 ‘약자의 눈’이 국회와 청소년 현장 단체들이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법적 기반을 마련,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창립총회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용한 재앙’으로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첫 논의 주제로 포럼을 열기도 하였다(서울 Pn, 2024.11.19.).

또한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발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도서관 발전의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 및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확립에 나설 것을 밝히며, “(사회적 연결)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공동체 교류 공간조성 및 위기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도서관프로그램 운영(보건복지부 「제1차고독사예방기본계획(2023~2027)」 연계)” 추진 계획 등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시대의 현실에 마주하며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역할변화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용훈, 2024.10.17.). 한편 국외에서는 이미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안전지대로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스탠리 밀너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공간을 넘어, 간호사와 아웃리치팀이 상주하며 약물 과다복용 상황에 즉각적인 응급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용자 중 집 없는 사람, 잠시 쉬어 갈 곳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투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며 ‘사람을 살리는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뉴스1, 2024.9.27.). 또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고립·은둔 지원 사례로 영국은 ‘고독부’(차관급)라는 부처를 설치, 세계 최초 외로움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영국의 외로움 대처 전략은 ‘모든 이들이 관계망을 잇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역할수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외로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주요 주체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친구·가족·공동체·공공 건강서비스 기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뉴스웍스, 2024. 10.29.). 같은 맥락에서 영국은 2021년 지역도서관이 주민들의 웰빙 증진과 외로움 감소에 유익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며, 일본은 코로나19 계기 사회적 고립·관계 단절에 대응하고자 2021년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담당실'을 설치한 바 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이러한 사례는 지역 공공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플랫폼 역할이라는 도서관의 기본기능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지역 사회 안전망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용훈(2024.10.17.)은 도서관이 시대의 근본 과제에 당당하게 맞서 해결책이자 지역과 주민들에게 든든한 어깨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시대와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까지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약자 서비스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역할수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모든 공중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정보·문화·교육복지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우리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책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둘째,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셋째, 공공도서관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지? 3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방안 모색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Saito)에 의해 소개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일본의 특이한 문화현상으로 간주 되었으나, 급격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현재는 국제적 정신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Kato et al., 2019). 우리나라에서도 핵가족 증가, 아파트 문화 확산,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타인과의 관계 단절이 가속화되면서 세상을 피해 쫓겨는 6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제한된 장소에 계속 머물며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의 수가 급증하며 본격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은둔형 외톨이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한바, 심리과학 분야에서 18편(39.06%), 인문학(11편, 23.87%), 사회학(9편, 19.53%), 사회복지학(8편, 17.36%) 순으로 나타났다(김도희, 2024).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

관련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는 정근하 외(2021), 정근하와 노영희(2022a; 2022b; 2022c; 2022d), 노영희와 강정아(2024)를 제외하고는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 및 기사 등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김혜원(2022)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부모들의 심층 면담과 활동 온라인 카페 분석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는 대화상대가 없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지니며,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의 신뢰와 지지 및 기다려줌을 꼽았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부모는 멘토링, 부모교육 등 전문적 지원과 지원 시스템,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근하와 노영희(2022d)는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집 안으로 숨어들어 온라인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 특징이 있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은둔생활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며, 온라인 SNS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김재희(2023)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현황과 지원 과제-학령기에 은둔을 시작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과 장기화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과제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과제로 첫째, 은둔형 외톨이로의 진행 단계를 고려한 지원, 둘째, 장기적인 가정 방문 서비스, 셋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전문 시스템 구축, 넷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가족 지원, 다섯째, 학교와 지역사회 현장 전문가 양성, 여섯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법제화 및 실태조사 등을 제안하였다.

오윤선(2010)은 사이버 상담의 활성화와 온라인 상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과 상담을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정근하와 노영희(2022b)도 은둔형 외톨이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SNS 커뮤니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나가희, 권해수(2024)은 비대면 행동활성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우울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혜원(2023)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발적 은둔단절을 유도하기 위한 비대면 방식의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현실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와 도서관 관련 연구로, 정근하와 노영희(2025)는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도서관의 역할 연구를 통해 도서관을 활용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당위성으로, 첫째, 도서관은 방문 자체가 낙인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적 공간으로, 기존 상담센터나 지원센터와 차별화되는 점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낙인에 민감한 이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둘째, 도서관은 기존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센터 설립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제공한다. 셋째,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므로, 지역 내 청년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및 서비스 개발의 토대 마련에 다양한 관점을 제안하였다.

노영희와 강정아(2024)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조사 연구 수행 결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대한 사서의 인식은 크게 긍정적이지 않으며, 사서의 인식에서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 접근성 및 교육 기회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역할을 위한 외부 지원으로 사회적 관심과 예산, 내부 지원으로는 대응 의식과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지향점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외 인터넷자료 및 기사로는 부산일보(2023.8.24.) “부산 ‘은둔형 외톨이’ 집 밖 나갈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희망제작소 뉴스(2024.5.14.)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세상과 연결하다”, 단비뉴스(2022.8.29.) “게임과 잠으로 고립을 잇는 은둔 청년”, 웰로(2023.3.) 화성시 은둔형 외톨이 전문상담센터 ‘나:옴’ 소식지에 소개된 “봉담읍의 한 작은도서관 이야기”, 하루결(2023.9.20.) 브런치스토리 “책 읽는 히키코모리” 등에서 실제 은둔형 외톨이의 도서관 방문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내일신문(2024.4.25.)은 “도서관이 지닌 포용성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제안하였다.

위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연결을 위한 고립·단절 해소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둘째, 은둔형 외톨이들은 여전히 누군가와 소통을 원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위한 방법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찾고 있다는 점이다(김혜원, 2022; 유민상, 신동훈, 2021; 정근하 외, 2021). 셋째,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사회·제도적 관심이 확대되며,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발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도 도서관이 지닌 포용성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 공동도서관에서의 인식과 서비스 수행은 미미하다는 점이다(노영희, 강정아, 2024). 넷째, 최근 은둔형 외톨이의 도서관 이용 사례 및 독서를 통해 은둔에서 벗어난 사례가 소개(내일신문, 2024.4.25.; 단비뉴스, 2022.8.29.; 부산일보, 2023.8.24.; 하루결, 2023.9.20.)되는 등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 개인의 사회적 연결 기회 및 성장지원, 더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발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의 가치 실현을 위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플랫폼을 넘어 사회적 약자로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역할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및 서비스 지원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웹 정보, 기사 등을 통해 조사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적용 방안을 기반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첫째, 고립·은둔의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둘째, 선행연구 및 웹 정보, 기사 등을 통해 연구 질문에 따른 정책지원 현황, 서비스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단계	연구 내용
이론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 특성, 서비스 관련 내용 조사·분석 • 정보원: 논문, 보고서, 기사, 웹 정보 등
↓	
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 정책지원 체계 현황조사 • 선행연구, 웹 정보, 기사 등을 통한 서비스 사례 조사
↓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분석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국내외 사회서비스 분석
↓	
도서관 서비스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분석을 통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적용 방안 도출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안
↓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을 통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 제안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2. 연구 질문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기구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선행연구 등을 통해 조사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 1. 우리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책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 및 방식은 어떠하며, 이러한 정책지원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질문이 제시될 수 있다.

- RQ 2.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현재 진행되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의 내용은 어떠하며, 공공도서관 적용 가능성 및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전문 지원센터가 아닌 공공도서관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의 범위는 어떠해야 할지 등에 대한 연구 질문이 제시될 수 있다.

- RQ 3. 공공도서관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가?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수행에서 구체적인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질문이 제시될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현황

가. 정책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형 실태조사 시행

2023년 보건복지부는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살펴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연합뉴스, 2023.5.14.).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고려해 진행한 이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7주간 시행되었으며, 전국 19~34세의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외톨이의 욕구를 파악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수록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 방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고립 청년의 비율은 2021년 기준 5.0%로, 이 비율을 2021년 전체 청년 인구(1천77만 6천 명)에 적용해 보면 고립 청년의 수는 53만 8천 명에 달한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9년 3.1%에 비해 1.9% 더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정책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실태조사 시행

정부 주도 조사 이외 지방자치단체별 조사 현황을 통해 본 대상과 목적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2022년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로 은둔·고립 관련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고립·은둔의 특성상 당사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법적 개념 및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은둔형 외톨이 수는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이유로 지역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 은둔·고립 청년 관련 실질적·지속적인 정책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표 1〉 지방자치단체 별 은둔·고립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조사기간	대상	목적
서울특별시	2022년 8월~9월	서울시 만 19~39세 청년 거주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	• 은둔·고립 청년 관련 실질적·지속적 인 정책지원
광주광역시	2023년 7월~8월	19~39세 청년	•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정책 개발
인천광역시	2024년 7월~9월	인천에 거주,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생활하는 19세 부터 64세까지의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 은둔형 외톨이 특성 파악 •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부산광역시	2024년 1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810명	•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4~2028) 수립
경기도	2024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개인	• 고립·은둔 청년 현황 파악 • 정책 설계 및 지원 근거
경기도 고양시	2024년 10월7일~10월31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은둔생활을 하는 고양시민 또는 가족	• 생활 실태, 복지 욕구 등 조사 • 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 기초자료 활용
대구시 남구	2024년7월	대구시 남구 거주	• 지원 방안 도출
경상남도	2024년 6월~8월	19살에서 39살 이하 도민	• 정책적 지원 방안 도출
경남 창원시	2023년	청년 703명	• 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 기초자료 활용 • 기관 간 연계 협력 강조
경남 진주시	2024년 11월18일~12월31일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중 19세부터 49세에 해당하는 청장년층과 주민의 신고 등으로 파악된 고독사 위험군 등 300여 가구	• 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 기초자료 활용 • 맞춤형 복지서비스(사례관리,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 추진
전남 익산시	2024년 6월11일~8월31일	9-24세 청소년	• 정책적 지원 방안 도출
충북 청주시	2024년	청주시 청년인구(19-39세)	•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다.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조례제정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를 위한 정부 접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에서 출발하였다(정근하, 노영희, 2024).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10.15.)를 제정하였다. 2024년 12월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6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2년 12월 기준 부산을 비롯해 4개 광역자치단체 포함 총 10여 지자체에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전체 지자체 226개 대비 4.4%로 나타난 것(오마이뉴스, 2022.12.26.), 2024년 3월 기준 45개 시·도,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정근하, 노영희, 2024) 된 것과 비교해서도 빠른 변화를 보인다.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N.	지자체	지원위원회	지원센터	협력체계	N.	지자체	지원위원회	지원센터	협력체계
1	경기도	o	o	o	31	서울 구로구	x	x	o
2	경산시	x	x	o	32	서울 금천구	x	x	o
3	고양시	o	o	o	33	서울 노원구	o	x	x
4	광명시	x	x	x	34	서울 동대문구	x	x	o
5	광주 광산구	x	x	o	35	서울 마포구	x	x	o
6	광주 남구	o	x	x	36	서울 서대문구	x	x	o
7	광주 동구	o	x	x	37	서울 성북구	x	x	o
8	광주 북구	o	x	o	38	서울 영등포구	x	x	o
9	광주 서구	o	x	x	39	서울 용산구	x	x	o
10	광주광역시	o	o	o	40	서울 은평구	o	x	x
11	구리시	x	x	o	41	서울 중랑구	x	x	o
12	김해시	x	x	o	42	순천시	o	x	x
13	대구 남구	x	x	o	43	아산시	x	x	o
14	대구 달서구	x	x	o	44	안동시	o	x	x
15	대구 달성군	x	x	o	45	울산 중구	o	x	x
16	대구 수성구	x	x	o	46	울산광역시	x	x	o
17	대전 대덕구	x	x	o	47	의왕시	x	x	o
18	대전 동구	x	x	o	48	이천시	x	x	o
19	대전 북구	x	x	o	49	인천 미추홀구	o	x	x
20	대전 서구	x	x	o	50	인천 연수구	o	x	x
21	대전 유성구	x	x	o	51	인천 중구	x	x	o
22	대전 중구	x	x	o	52	인천광역시	x	x	o
23	대전광역시	x	o	o	53	장성군	o	x	o
24	부산 부산진구	x	x	o	54	전라남도	x	x	o
25	부산 서구	x	x	o	55	전북특별시	x	x	o
26	부산 수영구	x	x	o	56	전주시	x	x	o
27	부산광역시	o	x	o	57	제주도	x	x	o
28	서울 강북구	x	x	o	58	진주시	x	x	o
29	서울 관악구	x	x	o	59	포항시	x	x	x
30	서울 광진구	x	x	o	60	부산 사상구	x	x	o

출처: 정근하, 노영희(2025) 수정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례를 보면 직업훈련·취업 지원 및 상담 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지역에 따라 지원 시책 심의를 위한 지원위원회와 지원 사업 집행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 협력 체계, 실태조사, 부모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총 4곳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내용이 비슷하였으나 협력 기관,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대부분 조례가 민·관의 적극적 발굴이 아닌 신청주의에 입각한 은둔형 외톨이들의 능동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사회가 사회적 관계의 약화를 보이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지지망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은둔형 외톨이들의 은둔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공통 요인을 확인하며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이루어질 때 지원의 효과성이 확보될 것이다(민기채, 2023; 정근하, 노영희, 2022c).

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현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공적 지원을 통해 히키코모리에 특화된 전문적인 제1차 상담 창구 기능 기관으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총 79개관이 운영 중이다. 이와 연계된 민간 지원단체가 1,089개로 파악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역 1차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링크 우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서 적합한 기관이나 서비스로 의뢰하는 사회적 처방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제공 기관과 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 정규교육 및 대안교육, 헤드스타트 또는 얼리 헤드스타트 센터, 참여자의 집, 청(소)년 교육 및 고용 센터, 지역 기반 기관, 지역고용발전협의회 및 전문대학, 지역 기반 청(소)년 노숙자 지원기관 등 ‘단절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돕는 데 다양한 기관의 정책적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국내의 경우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조례제정,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로, 2024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도시에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열었다.

2.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 사례

본 장에서는 연구 질문 둘째,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및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도서관을 활용 사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국외 사례로 일본, 영국, 미국의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 도서관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공공도서관은 정보 접근성과 문화적 포용성을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hikikomori)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제공 기능을

넘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촉진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제공한 독서 활동 지원

독서는 은둔형 외톨이에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하루결(2023. 9.20.)의 브런치스토리 “책 읽는 히키코모리” 사례는 독서가 은둔형 외톨이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해당 사례에서 한 개인은 장기간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으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하면서 점차 외출을 늘려 나갔다. 도서관 방문은 단순한 정보 탐색을 넘어 외부 환경과의 접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사례는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에게 심리적 안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수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지역 구성원의 소통 플랫폼 기능의 작은도서관 서비스

작은도서관은 대규모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지역주민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윤도현(2024.1.30.)의 오마이뉴스 기사 “단지 책 빌리는 곳이 아니었다... 작은도서관의 놀라운 기능”에서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은둔형 외톨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형성이 사회적 고립 완화에 기여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도서관을 거점으로 상담센터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화성시 봉담읍의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은둔형 외톨이 전문 상담센터 ‘나옴’은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제공 기관을 넘어 심리 상담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웰로, 2023). 해당 사례에서는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도서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심리 상담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복귀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상담 과정을 거쳐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결혼을 통해 가정을 형성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전문 상담 기관과 협력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단계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국외 고립·은둔 청년 지원 서비스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국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로 선정한 국가는 일본, 영국, 미국 3개국이다. 일본은 장기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영국 사례는 외로움 역시 국민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외로움 관할 정부 부처를 두고 책임자를 임명, 진행하는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 미국 사례는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에 대한 특화 지원 사례로, 단일 정책이 아닌 지역 사회의 상황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표 3〉 일본, 영국, 미국의 서비스

구분	일본	영국	미국
지원 주체	공적, 민간지원단체	시민사회부에서 정부 정책을 총괄·조율 실제 관련 사업은 시민사회부 외 교육부, 교통부, 노동연금부 등 정부 내 전 부처 수행	주, 지방, 부족 정부의 연금 기금 사용에 유연성을 제공, 미국 전역 성과협력 시범 사업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과 정책 • 지역지원센터, 서포트 스테이션 • 전문상담 (민간자격증으로 히키코모리 지원상담사 운영) • 가족모임 • 당사자단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처방 • ‘연결된 사회’ 만들기 • 인프라 구축 사업 • 인식 개선 정책 • 재정적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3 서비스0 접근 (고용, 기술향상 중심) • P3 특화 서비스 (사례관리, 학습공동체, 상담 등 사회적 관계형성 중심) • 기타 서비스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 전문상담, 커뮤니케이션 훈련 • 취업 지원 • 당사자 관계자 논의모임 • [히키코모리 대학]은둔당사자, 경험자 강사 활동의 역발상 이동식 캠퍼스 • 당사자 경험담을 담은 잡지 ‘HIKIPOS(히키포스)’ 발간 • 이바쇼 ‘내 자리, 내가 있어도 되는 공간’ 공간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처방] 지역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링크 우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 적합한 기관이나 서비스로 의뢰 • [‘연결된 사회’ 만들기 인프라 구축 사업] 개인 이동권 향상,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 개개인들의 상호교류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아웃리치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 (기술직업)교육활동 • 일 경험 및 인증 프로그램 • 각종자원연계(현장견학포함) • 멘토링 • 숙제도우미 • 학업 및 학위 관련 서비스

유민상, 신동훈(2021) 내용을 분석, 재정리

유민상과 신동훈(2021)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위한 국외 서비스는 가이드라인과 정책 수립, 지역지원센터 운영, 전문 상담 지원, 사례관리, 자립(취업 등)지원, 학습 및 교육지원, 공간지원 등이었으며 이외 관련기관 및 서비스로 의뢰하는 사회적 처방, 인식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경험담을 담은 잡지발간, 공간지원, 아웃리치, 문화교

육프로그래, (기술직업)교육활동, 멘토링, 숙제도우미 등 학업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눈여겨볼 만한 서비스로는 은둔 당사자와 경험자가 강사가 되어 고민하는 부모나 지원자, 가족관계자, 당사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역발상의 히키코모리 대학 운영, 매호 마다 중심 주제에 따른 '왜 은둔했는지?', '난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히키코모리와 연애, 결혼, 행복', '히키코모리와 일하기', '히키코모리와 아버지, 편견, 친구, 건강, 돈, 지방' 등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수록된 잡지 'HIKIPOS(히키포스)' 발간 등이 있다.

다. 국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서비스

국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 내부의 이질성 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고립 청년 지원 사업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 실태 파악, 고립의 원인 및 배경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관련 단체, 당사자에 이르는 광범위한 협력체계 아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공공도서관 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분석을 통해 도서관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은둔·고립 지원 사회서비스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표 4〉 국내 지원기관별 서비스

구분	지원주체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청년미래센터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 자가 진단 서비스 초기 상담 서비스 맞춤형 프로그램 가족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 모임·일상 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가족 대상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 모임 등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형 외톨이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은둔형 외톨이지원 당사자, 가족 상담 및 교육 은둔형 외톨이지원 당사자, 가족 치유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 협력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내방, 온라인 상담 및 교육 은둔성향 단계별 치유프로그램 당사자 집단상담 및 대화모임 방탈출서비스를 통한 도전프로그램 은둔고수되기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지원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작은거인의 꿈'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형 외톨이 지원 소통-교류사업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멘티 활동 은둔형 외톨이 참여 봉사프로그램
무중력지대 양천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지원]모임 공간대여 [진로지원]취업 지원 [생활지원]문화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사업 [활동지원]학습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상담 프로그램 [정책·연구지원]정책 및 자원 연계, 청년 연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개방 멘토링 [문화프로그램] 가벼운 네트워킹 (공방 원데이클래스, 그림 그리기, 요리 등), 공연관람, 탐방 [커뮤니티 지원] 자조 모임, 소모임 지원 예) 어슬렁 반상회 동네 모임_식사 (도시락, 맛집 탐방) 모임 [학습프로그램] 문자메시지로 프로그램/정책 정보 안내

구분	지원주체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희망플랜사업	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교육(학업, 예체능, 직업), 경제활동(직업 훈련, 창업준비), 코칭, 아웃리치(학업 및 학교 복귀) 및 사례관리 • [가족]경제활동참여지원(직업 연계, 창업 준비), 가족 기능강화, 부모코칭, 사례관리 • [지역사회]지역사회역량강화(마을활동가, 지역사회 자원발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지원 • 취업사전준비교육(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미지 메이킹, 면접 기술 등) • 공간지원 • 비전스쿨('나, 직업, 진로' 탐색, 성격 유형검사, 1:1상담, 진학상담 등) • 정서적지지, 자존감 향상 코칭 • 동아리 활동 • 멘토링 • 부모교육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K2인터내셔널 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출지원 패키지 • 공동생활 • 내일내일 프로젝트 • 일하기 체험
리커버리센터	푸른고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청년' 회복지원공동체 • 개인별 맞춤형 회복 로드맵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치료, 글쓰기, 심리상담 등 • 자립워크숍(돌봄, 관계, 진로찾기 등)
니트컴퍼니	니트생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패턴 개선 •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일상 회복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인증 • 사내동아리 교류 지원
움직이는 섬	한국토지주택공사(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 발굴 • 사회 복귀지원 원스톱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치료 • 직업교육
EXIT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고립 당사자 회복지원 프로젝트 • 은둔·고립 지원 사업 실행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하는 동행 1:1 위드워킹(활력캠프)
두더지땅굴	사단법인 씨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과 고립 청년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모임, 집밥모임 등 동아리 • 상담, 일 경험 • 참여광장 운영

위 사례분석 결과, 현재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당사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상담 지원, 자립(취업 등) 지원, 학습 및 교육지원, 공간지원 등이 지원되며,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코칭 및 치유를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마을활동가 양성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을 통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로 부모(가족) 대상 소통 교육, 멘토링, 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동아리 및 소모임 지원, 합숙 등 공동생활공간지원, 개인별 맞춤형 회복 로드맵 제공, 정책정보서비스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사례를 통한 서비스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부모가 멘토링, 부모 교육 등의 전문적 지원 시스템과 정책을 매우 필요로 한다는 주장(김재희, 2023; 김혜원, 2022)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사례분석을 통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적용 방안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면, 공공도서관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독서 및 정보서비스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특히, 작은도서관과 같은 지역 밀착형 공간은 은둔형 외톨이가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접근을 지원하는 데 기여가 가능하다.

셋째, 공공도서관 개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담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한 공공도서관프로그램은 은둔형 외톨이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공도서관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정책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V.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안

1.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한 제안

본 장에서는 연구 질문 셋째, 공공도서관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지? 즉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수행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은 어떠할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에서 정의하는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교양 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 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이에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토대로 국내외 은둔·고립지원 사회서비스 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지역자원으로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강화

하루결(2023.9.20.) 브런치스토리 “책 읽는 히키코모리” 사례는 도서관의 기본적 기능 수행만으로도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립·은둔 당사자 80% 이상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외부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 ‘몰라서’, ‘비용부담’, ‘지원기관이 없어서’(보건복지부, 2023)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협력체계로서 역할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은둔 당사자의 사회연결을 위한 기관 정보서비스, 서비스 의뢰, 지역 지원센터 연계 멘토링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온라인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이를 가정방문 아웃리치 대출서비스로 연계하는 방법,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의 구독 서비스, 자립과 탈 은둔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등 공공도서관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주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고립·은둔 당사자들은 미래 희망이 없고(66.3%) 대인 접촉에 크게 두려움을 갖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극단적 삶의 태도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탈고립·은둔 노력의 방법으로 취미활동(35.6%)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23), 은둔형 외톨이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국내외 사회서비스에서도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상담, 예체능 활동, 예술치료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4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동호회)을 지원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공동체 교류 공간 조성 및 위기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도서관프로그램 운영 연계 등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지역 대표 문화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은둔형 외톨이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용과 운영 방법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상담센터와 연계한 독서상담, 독서치유, 예술치료 등의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립 지원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조례제정 내용 분석 결과, 조례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직업훈련·취업 지원 및 상담 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지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가족 심층 인터뷰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64.2%가 탈고립·은둔을 희망하며, 탈고립·은둔을 위한 노력으로 '일이나 공부 시작(45.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박규범 외, 2024). 또한 국내외 운영 중인 은둔형 외톨이 사회서비스 내용이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탈피를 위한 진로 지원, 학습활동 지원,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교육 및 직업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은 평생학습 기여 시설로 기능한다. 따라서 평생교육 기능 수행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민교육, 평생교육 강좌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공동체 활력을 위한 공간지원서비스 확대

하루결(2023.9.20.) 브런치스토리 “책 읽는 히키코모리”, 오마이뉴스 “단지 책 빌리는 곳이 아니었다... 작은 도서관의 놀라운 기능”, 화성시 봉담읍의 작은도서관(화성시 은둔형 외톨이 전문상담센터 운영) 사례 등은 공공도서관이 기존의 자료제공 이외 주민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 상담의 공간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성시 봉담읍의 작은도서관(화성시 은둔형 외톨이 전문상담센터 운영)은 특히 심리상담전문가들이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고 이들의 상담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로 복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개인이 본연의 모습 그대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하는 ‘이바쇼’ 운영 사례는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제한 없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진 공공도서관 공간지원 서비스 확대는 공공도서관 측면에서는 공동체 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하고, 은둔형 외톨이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2. 공공도서관의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확대 방안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hikikomori)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

은둔형 외톨이는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고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공공도서관이 정보 제공 거점으로서 기능하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및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은둔형 외톨이의 관심 분야 및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독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도서 대출 서비스 외에도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패키지(예: 심리적 회복, 사회 복귀, 자기계발 등)를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은둔형 외톨이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지역 사회의 전문 상담 서비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심리 상담사 및 사회

복지사와 연계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익명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상담 지원을 병행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비대면 상담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직접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챗봇을 활용한 상담 시스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독서 큐레이션 등의 방안을 도입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비대면 및 점진적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 운영

은둔형 외톨이는 대면 접촉에 대한 불안이 크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프로그램 및 점진적 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이들의 사회적 연결을 도울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첫째,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활동에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독서 모임 및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독서 토론, 원격 강연, 자기계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가상현실(VR) 및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안전하게 사회적 활동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도서관 서비스는 은둔형 외톨이가 집 안에서도 타인과의 교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활동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셋째,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에게 적합한 사회 활동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 및 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은둔형 외톨이 대상 맞춤형 심리적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사회 재적응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서관 공간 조성

은둔형 외톨이가 공공도서관을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이바쇼(ibasho)' 프로그램 사례에서 나타나듯, 은둔형 외톨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첫째, 은둔형 외톨이가 외부 자극 없이 독서 및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독립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용한 독서실, 휴식 공간, 개인 학습 공간 등을 별도로 조성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은둔형 외톨이가 점진적으로 사회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중립적 공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직접적인 대면 교류보다는 간접적인 사회적 노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방형 좌석 공간, 창작 활동 공간, 그룹 독서 공간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접촉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화된 예약제 공간 운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공공도서관을 보다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 전문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은둔형 외톨이의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 내에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워크숍, 창작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점진적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복지 단체,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하여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 사서 및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 내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서 대상 심리적 응급 대처 교육, 상담 기초 교육,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 교육적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학습 기회 및 직업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다.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들의 주요 탈 은둔 방법으로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 기능을 활용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온라인 강좌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비대면 방식의 강의, AI 기반 학습 맞춤 추천 시스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직업 탐색,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워크숍 등을 제공하여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모 대상 상담 및 소통 교육을 제공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도록 해야 한다.

바. 법·제도적 지원 확대 및 정책 연계 강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과 정책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에 은둔형 외톨이 대상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은둔형 외톨이 대상 서비스 제공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도서관 서비스와 연계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포용과 재통합을 위한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건복지부(2023)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당사자의 80% 이상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외부 도움을 받지 않는 주요 이유로 ‘몰라서(28.5%)’, ‘비용 부담(11.9%)’, ‘지원기관이 없어서(10.5%)’를 꼽고 있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의 복지 및 정신 건강 서비스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공도서관은 보편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보 제공, 심리·정서적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안전한 공간조성 등 다층적 역할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의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루결(2023)의 브런치스토리 “책 읽는 히키코모리”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도서 대출 서비스만으로도 은둔형 외톨이가 도서관을 이용할 동기를 부여받고 점진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외부 지원을 받지 않는 주요 이유가 정보 부족(보건복지부, 2023)인 점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보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큐레이션 제공,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의 온라인 구독 서비스, 가정방문 아웃리치 대출 서비스,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지역 지원센터 연계, 멘토링 등의 정보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독서 모임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사회적 두려움과 대인 관계 회피 성향이므로(Teo et al., 2015), 대면 접촉이 부담스러운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비대면 방식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이바쇼(居場所)’ 운영처럼, 은둔형 외톨이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은둔형 외톨이들의 탈 은둔 노력 방법으로 ‘취미 활동’(35.6%)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보건복지부, 2023)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이 이들을 위한 비대면 취미활동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안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도서관을 심리적 안정 공간으로 조성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웰로(2023)의 ‘나:옴’과 같이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전문 상담 및 심리 지원프로그램 운영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은둔형 외톨이 전문 상담센터 운영은 공공도서관이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내에 개별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심리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도서관의 평생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정근하와 노영희(2025)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 지자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직업훈련·취업지원 및 상담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단위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직업 탐색, 경제 교육,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탈 은둔 방법이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인 것을 볼 때(박규범 외, 2024),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학습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다 부처 협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도서관이 지역 거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과 연계하여 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공동체 교류 공간 조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 실행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포용과 재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 혁신이 요구된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 배경,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복지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경우, 공공도서관은 은둔형 외톨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다양한 계층에게도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2016). 일본 히키코모리 청년을 위한 ‘소다테아게넷’ 프로그램.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1602232257555>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서울: 국가도서관위원회.
- 김도희 (202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4), 197-223.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4.197>
- 김재희 (202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현황과 지원과제-학령기에 은둔을 시작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1-32.
<https://doi.org/10.21509/KJYS.2022.10.29.10.1>
- 김혜원 (2023). 고립·은둔 청소년 이해 및 지원 사업 추진방향. 청소년정책리포트 3.
- 나가희, 권혜수 (2024). 청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비대면 행동활성화치료 개발 및 효과. 인지행동 치료, 24(3), 323-343.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744>
- 내일신문 (2024. 4. 25.). 도서관에서 사회적 연결, 도서관이 지닌 포용성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출처: <https://www.naeil.com/news/read/508546?ref=naver>
- 노영희, 강정아 (2024).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4), 49-71.
- 뉴스웍스 (2024. 10. 29.). 영국 ‘외로움부’ 사례... 범정부 더해 민관 협력 필수. 출처: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689>

- 단비뉴스 (2022. 8. 29.). 게임과 잠으로 고립을 잇는 은둔 청년. 출처: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5>
- 도서관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민기채 (202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 관한 비교 연구. GRI 연구논총, 25(3), 227-248.
- 박규범 외 (2024). 2024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
보고 2024-05.
- 보건복지부 (2023).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278&act=view
- 부산일보 (2023. 8. 24.). 부산 '은둔형 외톨이' 집 밖 나갈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출처: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82418074538700>
- 연합뉴스 (2023. 5. 14.)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 54만명... 44%가 “삶에 불만족”.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3028100530>
- 오마이뉴스 (2022. 12. 26.).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0449
- 오윤선 (201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상담 활성화 방안 연구. 복음과 상담, 15,
201-220. <https://doi.org/10.17841/jocag.2010.15.201>
- 웰로 (2023). 화성시 은둔형 외톨이 전문상담센터 ‘나:옴’. 희망화성, 3월호. 출처:
<https://www.welfarehello.com/community/hometownNews/c54837b0-1f88-4e0d-b0a0-422c92d62c0d>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21-R07.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11055257>
- 윤도현 (2024. 1. 30.) 단지 책 빌리는 곳이 아니었다... 작은도서관의 놀라운 기능. 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282
- 이용훈 (2024. 10. 17.). 시대와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도서관 활동이 필요하다. 출처:
<https://www.readin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9>
- 이준우, 정준구 (2024).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11(2), 324-340. <https://doi.org/10.20496/cpew.2024.11.2.323>
- 정근하, 노영희 (2022a).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출현 배경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6(1),
229-250.
- 정근하, 노영희 (2022b).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 한국비교정

- 부학보, 26(2), 135-158. <https://doi.org/10.18397/kcgr.2022.26.2.137>
- 정근하, 노영희 (2022c). 지방의회 은둔형 외톨이 조례안 비교 연구 - 6개 시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6(2), 209-225. <https://doi.org/10.18398/kjlgas.2022.36.2.209>
- 정근하, 노영희 (2022d). 한국과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은둔생활 비교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6(4), 121-142. <https://doi.org/10.18397/kcgr.2022.26.4.121>
- 정근하, 노영희 (2025).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도서관의 역할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9(1), 49-80. <https://doi.org/10.18397/kcgr.2025.29.1.049>
- 정근하, 이상엽, 노영희 (2021). 은둔형 외톨이 극복자들의 활동 확대를 통한 지방소멸 방지 방안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5(2), 141-165. <https://doi.org/10.18397/kcgr.2021.25.2.141>
- 하루결 (2023. 9. 20.). 책 읽는 히키코모리. 브런치스토리. 출처: <https://brunch.co.kr/@harugyel/274>
- 희망제작소 (2024. 5. 14.)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세상과 연결하다. 출처: <https://www.makehope.org/은둔형-외톨이-청년을-세상과-연결하다>
- News 1. (2024. 9. 27.). “캐나다 약물 중독자, 병원 대신 책으로 가득한 ‘이곳’에 모인다 [통신One]”. 출처: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553141>
- Kato, Takahiro A., Kanba, Shigenobu, Teo, Alan R. (2019). Hikikomori: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Futu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Available: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pcn.12895>
- Teo, A. R., Stufflebam, K., Tateno, M., Kanba, S., & Mathews, C. (2015). Identification of the hikikomori syndrome of social withdrawal: Psychosocial features and treatment preferences in four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1(1), 64-72.

[사이트]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https://gjtory.kr/>
- 대구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작은거인의 꿈. <https://m.blog.naver.com/littlegiantdream/223322872566>
- 두더지땅굴. <https://dudug.kr/>
- 무중력시대 양천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uthzone0_0&logNo=221330626609
-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https://www.instagram.com/theyouth1091/>
-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https://the-recoverycenter.org/>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lue Whale Recovery Center. <https://the-recoverycenter.org/>
- Busan Ilbo (2023, August 24.). We Need to Make a Space Where We Can Go Out of the House for 'the Hidden Loner' in Busan. Available: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82418074538700>
- Daegu Metropolitan City Hermit-type Lonely Support Center Small Giant's Dream.
<https://m.blog.naver.com/littlegiantdream/223322872566>
- Danbi News (2022, August 29). A reclusive young man who forgets isolation through games and sleep. Available: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5>
- Gwangju Metropolitan City Hermitized Loner Support Center. <https://gitory.kr/>
- Haru-yul (2023, September 20). Hikikomori reading books. Brunch Story. Available:
<https://brunch.co.kr/@harugyel/274>
- Hope Factory (2024, May 14). Connecting a Reclusive Loner Young Man with the World. Available: <https://www.makehope.org/은둔형-외톨이-청년을-세상과-연결하다>
- Jeong, Geun-Ha & Noh, Young-Hee (2022a). Background study of the emergence of reclusive loners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Comparative Government of Korea, 26(1), 229-250.
- Jeong, Geun-Ha & Noh, Young-Hee (2022b). Difficulties in grasping the reality of reclusive loneliness in Korean society and its solutions. Journal of Comparative Government of Korea, 26(2), 135-158. <https://doi.org/10.18397/kcgr.2022.26.2.137>
- Jeong, Geun-Ha & Noh, Young-Hee (2022c). A comparative study of the local council reclusive loner ordinance: focusing on six cities and provinces. The Korean Journal of Autonomous Administration, 36(2), 209-225.
<https://doi.org/10.18398/kjlgas.2022.36.2.209>
- Jeong, Geun-ha & Noh, Young-hee (2022d).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fe of a reclusive loner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Comparative Government of Korea, 26(4), 121-142.
<https://doi.org/10.18397/kcgr.2022.26.4.121>
- Jeong, Geun-Ha & Noh, Young-Hee (2025). A study on the role of libraries in helping reclusive loners return to society. Journal of Comparative Government of Korea,

- 29(1), 49-80. <https://doi.org/10.18397/kcgr.2025.29.1.049>
- Jeong, Geun-Ha, Lee, Sang-Yeop, & Noh, Young-Hee (2021). A study on how to prevent regional extinction by expanding the activities of reclusive loner overcoming. *Journal of Comparative Government of Korea*, 25(2), 141-165.
<https://doi.org/10.18397/kcgr.2021.25.2.141>
- Kim, Do-Hee (2024). Trends in domestic research on reclusive loners. *Learner-Centered Subject Education Research*, 24(4), 197-223.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4.197>
- Kim, Hye-Won (2022).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hermit experiences of reclusive loner youths. *Research in Youth Studies*, 29(10), 1-32.
<https://doi.org/10.21509/KJYS.2022.10.29.10.1>
- Kim, Hye-Won (2023). The direction of the project to understand and support isolated and hidden youth. *Youth Policy Report* 3.
- Kim, Jae-Hee (2023). Current status and support tasks of reclusive loner adolescents: focusing on adolescents who began seclusion in school ag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and Social Welfare Autumn Conference.
- Kyunghyang Newspaper (2016). Program “Sodateagenet” for young people in hikikomori, Japan. Available: <https://www.khan.co.kr/article/201602232257555>
- Lee, Joon-Woo & Jung, Joon-Gu (2024). A study on the reclusive life experiences of reclusive loner. *Korean Society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and Welfare, Counsel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11(2), 324-340.
<https://doi.org/10.20496/cpew.2024.11.2.323>
- Lee, Yong-hoon (2024, October 17). [Lee Yonghoon’s library communication 56.] Library activities are needed to respond to the problems of the times and society. *Korean Reading Education Newspaper*. Available:
<https://www.readin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9>
- Library Act [Enforcement August 8, 2023] [Act No.19592, August 8, 2023, Amendment to Other Laws].
- Min, Gi-Chae (2023).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dinance to support socially isolated youth. *Gyeonggi Institute, GRI Research Papers*, 25(3), 227-248.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Isolated and Sheltered Youth, Now the State Will Help. Available: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

- 9278&act=view
- Moles. <https://dudug.kr/>
- Na, Ga-Hoe & Kwon, Hae-Soo (2024).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Non-Face-to-Face Behavioral Activation Therapy for young reclusive loner. Korean Society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24(3), 323-343.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744>
- National Library Commission (2024). 4th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Seoul: National Library Commission.
- News 1 (2024, September 27). Canadian drug addict gathers in 'here' full of books instead of hospitals [Correspondence One]. Available: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553141>
- Newsworks (2024, October 29.) UK 'Lonely Ministry' case... Necessary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addition to pan-governmental. Available: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689>
- Noh, Young-Hee & Kang, Jung-A (2024). A study of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social role of libraries for reclusive loner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4), 49-71.
- Oh my news (2022, December 26). There is no South Korea for the 'hidden loner'. Available: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0449
- Oh, Yoon sun (2010). A study on the Christian counseling for adolescents in Hikikomori. The Korean Evangelical Counseling Society, Gospel and Counseling, 15, 201-220.
<https://doi.org/10.17841/jocag.2010.15.201>
- Park, Kyu-beom et al. (2024). 2024 Survey on the Status of Young People Isolated and Hidden in Gyeonggi-do. Gyeonggi Welfare Foundation, Gyeonggi Welfare Foundation Policy Research Report 2024-05.
- People Who Build People. <https://www.instagram.com/theyouth1091/>
- Tomorrow Newspaper (2024, April 25). Social connection in the library, resolving social isolation with the inclusiveness of the library. Available:
<https://www.naeil.com/news/read/508546?ref=naver>
- Wello (2023). Hwaseong City reclusive loner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Me:Om'. Hwaseong City newsletter 'Hope Hwaseong' March 2023 issue. Available:
<https://www.welfarehello.com/community/hometownNews/c54837b0-1f88-4e0d-b0a0-422c92d62c0d>

Yangcheon Blog in Weightless Zone.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uthzone0_0&logNo=221330626609

Yonhap News (2023, May 14) 540,000 young people isolated from society... 44% are “unsatisfied with life.”. Available: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3028100530>

Yoo, Min-Sang & Shin, Dong-Hoon (2021). Research Report on the Actual State of Social Isola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Young People. Korea Institute for Youth Polic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1-R07.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11055257>

Yoon, Do Hyun (2024, January 30). It Was Not Just a Place to Borrow Books... Amazing Functions of Small Libraries. OhmyNews. Available: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282